천국 임계점

(눅24:1-49)

1. 안식 후 첫날 새벽에 이 여자들이 그 준비한 향품을 가지고 무덤에 가서
2. 돌이 무덤에서 굴려 옮겨진 것을 보고
3. 들어가니 주 예수의 시체가 보이지 아니하더라
4. 이로 인하여 근심할 때에 문득 찬란한 옷을 입은 두 사람이 곁에 섰는지라
5. 여자들이 두려워 얼굴을 땅에 대니 두 사람이 이르되 어찌하여 살아 있는 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6. 여기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느니라 갈릴리에 계실 때에 너희에게 어떻게 말씀하셨는지를 기억하라

46. 또 이르시되 이같이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제삼일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것과
47. 또 그의 이름으로 죄 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에서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 기록되었으니
48.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49.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 하시니라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 중심으로 <천국 임계점>이라는 제목의 하나님 말씀 증거 합니다.

여러분, 임계점이 뭔지 다 아시죠?
물질의 형태와 성질이 변화하는 시점의 온도와 압력을 임계점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물리학적으로 임계점이라 그럴 때, 물의 임계점을 예를 들면, 물의 상태와 수중기의 상태가 구분이 안 되는 그런 지점이 있다 그래요.
저는 그런 지점을 못 봤어요.
근데 어떨 때 그런가 하면, 밀폐시킨 용기 안에서 물을 374.2도까지 끌어 올리면 물과 수중기

가 구분이 안 되는 상태가 된다고 합니다.
이걸 물리학적 의미에서 임계점이라고 말을 하는데, 물의 임계점.
근데 우리가 이 임계점을 변화와 국면의 전환에 초점을 맞추어서 비유적으로 많이 사용을 하게 됩니다.
물의 임계점은 비유적인 의미에서 물이 상온의 상태에 있다가 끓지 않습니까? 끓는다는 변화가 주어지려면 100도까지 물을 올려야 됩니다, 그렇죠? 99도까지 올려도 물이 끓지를 않아요.
이때 0도부터 100도까지 온도를 올리게 되는 이것은 임계량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임계점에 도달하기 위하여 채워야 될 과정이 임계량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변화와 국면의 전환이 일어나는 시점이 임계점이고, 그러한 시점에 도달하기 위해 필요한 과정의 내용이 임계량입니다.
그러니까 임계량이 채워져야 임계점에 도달하게 되는 것이겠지요.
그러면 천국의 임계점이라는 것은 무엇이냐?
오늘 본문에 마지막 부분에 주님께서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
우린 이게 무슨 얘기인지 다 알잖아요, 그렇죠?
오순절 날 성령이 임하면서 이 사람들이 뛰쳐나가기 시작합니다.
겁에 질려 있던 사도들과 예수님의 추종자들이 뛰쳐나가면서, 그들을 통해서 천국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너무 평범하고 별 볼일 없던 한 인간들을 통해서, 천국이 나타나기 시작하는 거, 이게 바로 임계점이라는 거예요, 천국의 임계점.
그러니까 내 삶에서, 내가 가는 곳마다 가정이면 가정, 직장이면 직장, 학교면 학교, 교회면 교회, 어디든지 내가 가서 머무는 그곳에, 천국이 나타나게 되는 그 천국의 임계점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어느 지점이 있다는 거예요.
두루뭉술하게 그냥 뭐 천국이 임하는가 안 임하는가 알 수도 없게끔 모호한 그런 얘기가 아니라, 명확하게 천국의 임계점이 있습니다.
천국이 우리의 지상의 삶에 나타나게 되는 그 임계점이 있고, 그렇게 나타나기 위해서 채워져야 될 임계량이 있다는 것이에요.

그 임계량에 관한 얘기가 오늘 본문에 나와 있습니다.
천국이 내 삶에서 나타나게끔 되려면, 어떤 내용들이 채워져야 그렇게 천국의 임계점에 도달해서 드디어 내 삶에 천국이 나타나기 시작하는가? 천국의 능력과 천국에서 결정된 뜻과 천국의 섭리와 천국의 창조적인 역사가 나를 통해서 어떻게 내 삶에 나타나느냐?
자! 주님의 부활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주님의 부활에 대한 기사를 읽어보면 특징적인 것이, 복음서 모두가 얘기하는 천사들의 등장입니다.
천사 하나가 등장했다고 얘기하고 또 여기선 둘이 등장했다고 얘기하는데, 그것은 마태 마가 누가가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기록을 할 때에, 각기 보는 측면과 관점을 달리 해서 하면서 나타난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 때문에 관점을 달리하고 성령에 사로잡힌 자들이 관점을 달리하고 있다고 보면 되는 것이지, 우리의 그 알량한 이성과 어떤 합리적인 능력을 동원해 가지고 모순이 된다, 이렇게 볼 필요가 없어요.
그것은 삼류신앙이 하는 얘기이고, 삼류신학자들의 얘기입니다.
이건 제 말이 맞습니다.
관점이 다르기 때문이고, 그 미세한 관점을 우리가 다 포착할 만큼 아직 영성이 sensitive하지 않은 것이 문제이지요.
중요한 것은, 천사가 등장을 했다는 얘기입니다.

부활의 의미가 뭘까요?
부활의 의미는 먼저, 종말론적인 부활,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 일어날 부활의 약속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부활 할 것이라는 약속의 선언입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부활은, 우리에게 부활적인 삶을 약속해 주는 것입니다.
부활적인 삶이라는 것은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요? 여러분.
우리가 이걸 오해하는 경우가 있어요.
병아리가 알에서 부화하듯이, 뭐 그런 것과 연관을 지어서 부활을 생각할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이 부활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전달되는 것은, 천국 임계점에 도달하기 위한 임계량이 무엇인가를 가르쳐 주는 겁니다.
자, 이게 무슨 말이냐?

우리가 착각하는 것은 예수님의 부활을, 예수님이 공생애를 사셨던 그 세상으로 다시 돌아온 것으로 생각을 할 때가 많습니다.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분명히 제자들을 만나고 있습니다마는, 예수님이 공생애를 하던 이 지상으로 돌아온 것이 아닙니다.
이상하다? 제자들은 여전히 그 지상에 남아 있는데…

그러면 무엇을 계시하고 계시는 사건입니까?
주님께서는 분명히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영혼을 아버지의 손에 맡기셨습니다, 그리고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부활하신 다음 40일 동안의 행적을 가만 보면, 공생애와 같은 사역을 하지 않습니다.
주님께서 공생애 동안에는 그렇게 많은 대적들과 논쟁을 하게 됩니다.
다시 말해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들과의 만남을 가졌습니다, 공생애 기간 동안에.
그런데 부활 이후에는, 그런 대적들과의 논쟁의 기록이 하나도 없습니다.
오로지 주님을 추종하는 사람들과만 만남을 하시고 승천을 하시게 됩니다.
그럼 이 얘기는 무슨 뜻일까요?
부활 다음에 있을 이야기들, 다음에 있을 사건들, 다음에 있을 삶의 내용들을 우리한테 계시하고 계시는 거예요.
부활 이후의 삶이라는 게 뭡니까?
십자가 이후에, 십자가에서 주님과 함께 죽음을 고백하는 자들이 그 다음 단계로 겪게 될 일들에 대해서 이야기해 주시고 계시는 겁니다.
천사가 등장 했다는 것은, 천국에 있는 존재가 등장해서 우리에게 계시를 주는 거예요.
변화산에서 주님께서 천국의 모습으로 변화하시고 모세와 엘리야와 함께 논의하시는 것과 같은, 그건 천국의 일입니다.
그런데 제자들이 봅니다.
천국의 일인데, 이 지상에 발을 딛고 있는 제자들이 그것을 보게 됩니다.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주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그 다음에 일어난 이 부활사건에서, 부활해서 주님을 만나고 있는 이 장면은 뭐냐 하면, 모든 사람이 어떤 사람이든지 간에, 주님의 십자가를 받아들여서 이

세상에 대해 죽은 자들이, 그 다음으로 일어나야 될 일들, 그 다음으로 겪게 될 일들을 계시해 주고 있는 내용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활하셔서 이쪽 세상으로 오신 게 아니에요.
공생애를 하시던 세상으로 온 게 아니라, 천국 쪽으로 빠져 나가신 것이고, 제자들에게 그 천국 쪽으로 빠져 나간 상태에서 제자들과 만남을 해 주시는데, 이때는 오로지 예수님의 십자가를 받아들이는 자들과만 만나시게 됩니다.
예수님을 추종하지 않는 자들과는 안 만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십자가를 통과한 자들과의 만남이라는 거예요.
십자가를 통과하지 않은 사람들은 아직도 세상에 있지만, 그들과는 안 만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의 십자가에서 주님과 함께 세상에 대해서 숨을 거둬들입니다.

그랬잖아요? '프뉴마'
마음인데, 호흡한다는 말을 생리적인 의미에서만 이 아니라, 이 프뉴마가 밖으로 나가서, 예를 들어 내가 자식을 앞에 보고 있다 그러면, 내 마음이 프뉴마가 몸을 통해서 밖으로 나와서 자식을 한번 쓰윽~ 다 만지고 어루만진 다음에 갖고 들어와서 자식을 느낍니다.
'아! 사랑스럽구나' 그리고 '이 자식을 내가 이러이러하게 키워야지'
이게 바로 호흡하는 거라는 거예요.
살아있음의 증거라는 얘기입니다.
마음으로 호흡을 하는 거예요, 마음으로.
좋은 차를 한대 보면, 그 마음이 몸으로 빠져 나가, 눈을 통해 빠져 나가서 차를 한번 마음으로 어루만지고, 마음으로 갖고 들어와서 '아! 이 차가 참 좋은 거구나' 느끼면서 '가져야 되겠다'
이런 것이 산 증거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십자가에서 죽는다는 것은 프네오를 마감한다는 얘기입니다.
마음으로 호흡하는 일을 마감한다는 얘기이고, 이 세상에 대해서 마음을 쓰지 않는다는 얘기가 되어 버립니다.

그런 다음에 무슨 일이 일어나느냐?
엠마오의 두 제자가 주님의 말씀을 듣고 가슴이 뜨거워지고, 열 한 제자가 모여 있을 때 주님께서 오셔서 또 말씀으로 가르치시고, 떡을 먹으며 교제를 하십니다.

떡을 먹으며 교제를 하시지만 지금은 공생애 때의 그 세상을 사는 게 아닙니다.
죽음 이후의 세상을 계시해 주고 계십니다.
이처럼, 내가 세상에 대해서 죽고 나면 어떤 일이 일어나나 하면, 이 세상에 어떤 사건과도 연관 되지 않고, 세상에서 그 누구와도 관계되지 않은, 세상의 이해관계가 완전히 차단된 상태에서, 순수하게 예수님과 만의 교제를 하는 시간이 있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제자들로서는 삼 년 동안 쫓아 다녔지마는, 처음인 거예요.
이 세상의 일과 아무 연관성 없이 예수님과만의 교제, 예수님 자신과 자기들만의 교제를 위해서 만나고 있는, 이 순수한 교제의 시간은 순수한 예수님과의 만남의 시간은 삼 년 만에 처음인 거예요.
십자가에 달리기 직전 까지도, 십자가에 달리실 그 시점 까지도 제자들과 예수님과는 그런 만남이 없었습니다.
'세상에서 무엇을 해야지, 세상에서 장관 자리를 해 먹어야지.'
이러한 세상에 대한 소원을 갖고 있는 상태에서 만났지, 세상에 대한 죽음, 세상에 대한 아~무런 생각이 없는 상태에서 예수님하고 순~수한 교제를 이룬 것은 이게 처음이라는 얘기에요, 부활 이후에.

그러니까, 주님의 십자가를 통과하게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그냥 죽은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과 천국에 계신 하나님, 천사의 등장이라는 것은 천국이 열린다는 얘기입니다.
내 마음에 이 세상을 마음이 호흡하고 있다가, 세상에 대해 주님의 십자가를 통해 숨을 거두어들이고 세상에 대해 죽게 되면, 그 다음에 그 마음이 죽은 상태로 있는 게 아니라, 십자가의 보혈로 그 더러워진 마음이 깨끗함을 입게 되면서, 하늘이 열리고 하늘과 교제를 하게 되는데, 이 교제가 임계량이라는 거예요.
임계량이 채워져 가는 과정이라는 얘기입니다.
이것이 채워져 가다가 어떻게 되느냐?
마지막에, 완전히 임계점에 도달하게 될 때, 하늘이 넘쳐 납니다.
예를 들어, 컵에다 물을 부으면 컵에 계속 물이 담겨지면서 고여 있게 됩니다.
그러다가 컵 위까지 완전히 고여지게 되면, 어느 순간부터는 물이 바깥으로 넘쳐 나게 됩니다.

물이 바깥으로 넘쳐나게 되는 고 지점이 임계점이고, 넘쳐나는 지점까지 물이 차는 것이 임계량입니다.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에 대해 십자가를 통해서 주님과 함께 죽으면, 그 다음에 하늘이 열립니다.
천사가 있는 하늘이 열리게 되고, 그 하늘에 있는 하나님 아버지와 주님과 함께 교제를 하게 됩니다.
성령님에 의해서 교제를 하게 될 때, 내 마음에 하늘이 차고 하나님이 차고 승천하신 주님이 차게 됩니다.
내 마음에 하늘이 차곡차곡 차게 될 때, 어느 순간 임계점에 도달하게 됩니다.
임계점에 도달하게 될 때부터, 그 다음부터 천국이 이 지상에서 이 몸을 통하여 내 삶에 나타나기 시작하게 된다는 얘기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무리 주님의 십자가를 붙잡고 죽으려고 기도를 하고 그래서 죽고, 하루 지내다 보면 또 다시 마음으로 이 세상을 호흡하게 되고, 마음이 세상에 붙어서 그걸 근심거리로 가져오고, 나갔던 마음이 돈 문제에 부딪쳤다가 그걸 자랑거리로 갖고 오던지, 나갔던 마음이 뭐 내 건강의 문제를 붙잡았다가 걱정거리로 갖고 오던지 하면서 살게 되서, 아! 이러면 안 되겠구나 하고 또 십자가를 붙잡고 기도하면서, 그런 마음의 호흡의 숨을 거두어들이고 죽어버립니다.
그리고 나면, 이 부활 이후에 제자들과 예수님과의 순수한 교제처럼, 하늘 아버지와 예수님과 하늘과의 교제가 이루어집니다.
그랬는데도 세상에 나가 살다 보면 천국이 나타나질 않습니다.
임계점에 도달하지 않았기 그런 거예요.
임계량이 채워지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거라는 겁니다.

실망하지 마세요. 임계량에 도달해야 되는 것이에요, 임계량에.
그 기간에 도달하지 않으면 천국은 나타나지 않습니다.
기도하는 동안에 혹시 내 마음에 평안이 주어졌어요, 그러나 아직 임계점에 도달한 게 아니에요.
평안이 주어지면 우리는 기도를 끝내고 나와서 살게 됩니다.

살아야지요, 출근 시간이 있는 거고 잠자는 시간이 있는 거고, 다 그런데 아예 잠을 안 잘 수도 없는 거고, 또 하루 완전히 잠을 안자고 기도한다 그래서 임계점에 도달하는 것도 아닙니다.
삶이 있고 그래서, 밥 지어먹고 직장생활 하고 공부하고 살아야 되는 것이에요.
그러나 이 시간을 놓지 않는 겁니다.
주님의 십자가를 통하여 내 영혼을 아버지께 맡기는 기도를, 계~속해서 해 나가는 동안에, 부활하신 뒤에 제자들과 교제하듯이, 하늘과의 교제가 계~속 내 마음속에 이루어지고, 내 마음에 하늘이 담겨집니다.
자꾸 하늘이 담겨지는 거예요.
그러다가 어느 시점에 도달하게 될 때에, 증인 되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제자들이 뛰쳐나가게 되는 것처럼, 공생애의 삶이 시작이 되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전적으로 하늘이 흘러나오는 것만으로 내 삶이 채워지는 그런 공생애가 시작되는 천국의 임계점이 있다는 얘기에요.

항간에 많이 되는 얘기 중 인디언부족 얘기가 있더라고요.
'100% 기우제'에요, '100% 기우제'
그 인디언부족들은 기우제만 드리면, 하여간 비가 내리는 거예요.
그 100% 기우제의 비결을 가만~히 들여다봤더니 어떤 거냐 하면, 기우제를 드리고 나서 기다리고 그리고 비가 오는 게 아닙니다.
한발이 시작이 되잖아요, 가뭄이 시작이 되지 않습니까?
그래 못 견디겠으면 이제 작심하고 기우제를 시작을 하게 됩니다.
근데 이 인디언들은 기우제를 한번 시작을 하면 중단하지 않는 거예요, 비가 올 때까지 기우제를 하는 겁니다.
정말 '영험한 기우제를 드리고 나서 하늘을 봤더니 비가 오더라!'가 아니라, 비가 오는 걸 보고서야 기우제를 끝내는 겁니다.
그러니까 기우제가 100%가 되는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천국의 임계점에 도달하는 것을, 우리 인생의 목표로 삼는 겁니다.
물론 직장생활 해야 되고, 공부해야 되고, 가정을 돌봐야 되고, 목회를 해야 됩니다.

그러나 우리의, 나 자신의 목표는 천국의 임계점에 도달하는 겁니다.
지금 돈 많이 벌었다고 된 게 아닙니다. 그거 아무 소용없는 거예요.
돈 안 벌었다고 안 된 게 아닙니다. 돈 안 번 거 아무 의미 없습니다.
내가 공부를 못해도 상관없고, 해도 상관없고, 학력이 있건 없건 상관없고, 스펙이 있건 없건 상관없습니다, 내가 무능하다 유능하다! 아~무 관계 없습니다.
이 세상에서 나를 무능하다 유능하다 보는 거, 그게 무슨 의미가 있는 겁니까?
오직 나는, 내가 지금 백수건달로 놀고 있더라도, 내 목표는 천국 임계점에 도달하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임계점 이후부터 천국이 나타나면, 하나님의 뜻과 능력과 하나님의 섭리가 나를 통해 나타나면 되는 겁니다.
대통령 자리에 지금 있어도 천국 임계점에 도달하지 못하면 Nothing입니다.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 앞에서.

그러니까 우리 목표는 천국의 임계점에 도달하면 되는데, 언제까지 이 도달하는 걸 목표로 삼느냐?
임계량을 채워가는 거예요.
계~속해서 주님의 십자가를 통하여 세상에 대해 죽는 기도를 하는 것이고, 세상에 대해 죽자는 말씀을 나누는 겁니다, 이 말씀이 없으면, 세상 말씀이 들어와서 내 마음을 지배해 버리니까.
이 말씀을 듣는 중에 세상 말씀이 떨어져 나가고, 아! 십자가를 붙잡아야 되겠구나, 다시 한 번 느끼고.
그래서 매일매일 상번제를 드린 겁니다, 구약시대부터.
그래서 그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임계량을 채워나가는 것을, 내가 지금 살아 있으면서 해야 될 과제로 생각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언젠가 임계점에 도달할 것입니다.
언젠가 하늘이 나를 통해서, 이 몸을 통해서 흘러나오게 되는 날이 있을 것입니다.
아~! 신나지 않습니까? 반드시 임계점은 있게 되어 있습니다.
단지 우리가 임계량을 채우고 있지 못하고 있기 때문인데, 이 임계량은 말씀을 붙잡고 십자가 복음을 붙잡고 기도하고 하는 생활이 날마다 반복되는 가운데 채워져 나갈 것입니다.

천국의 임계점!

주님이 부활하셔서 제자들과 함께 나눈 이 교제의 시간, 천국의 교제, 천국이 내 마음에 채워지는 이 임계량의 시간이 하루빨리 다 완성 되어서, 여러분 모~두에게 천국의 임계점의 시점이 임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아버지, 주님이 부활하셔서, 천국에 계시면서 천국과 우리와의 교제가 어떻게 이루어질 것인가를 계시해 주셨습니다.

이 천국 교제를 통하여 임계량을 채우게 해 주시고, 드디어 천국이 나를 통해 이 지상에 흘러들어오는 임계점을 경험할 수 있는, 복 중의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